

아동 권리 이슈포커스 -9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7년 11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의 목소리

Children's voice about the rights of the Child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사회가 지금 보다 더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아동은 성인과 동일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과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아동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이번 호는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의 권리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로서 우리사회의 필요한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놀이에 대한 가치 재발견과 아동의 놀이권 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 수준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권리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아동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Purpose and Need |

왜 우리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아동의 생각과 견해가 미숙하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학업, 대인관계, 진로 등 아동의 삶에서 아동 자신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 대표적으로 부모나 교사에 의해 결정되거나 통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보다 미성숙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한 측면이 강하였다(홍승애, 2010).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하며,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개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보고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는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정병수, 2016). 아동참여 기회 보장은 의사표현을 구체화시키며,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부여한다. 또한 아동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젤나·이재연, 2007).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의 목소리

아동의 삶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생생한 목소리는 아동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은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는 주체인 아동의 의견 청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아동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권리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를 종합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속에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권리의 다양한 측면과 아동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초등 고학년 아동 14명이 연구에 참여¹⁾하였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경험을 포토보이스 방법²⁾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주제분석³⁾을 통해서 의미단위를 추출하고 해석하였다⁴⁾.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의 목소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참여 아동 성명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2) 포토보이스는 사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입장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써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탐색하고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확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3) 주제분석의 방법은 녹취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와 하위주제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4)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아동 및 교육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인으로 구성된 동료집단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의 목소리」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하여 하위주제로 유목화한 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상위주제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공부의 양면성’, ‘권리보장의 0순위 놀이’, ‘위험에 몰린 아이들’, ‘행복의 이유’라는 상위주제와 이에 대한 각각의 하위주제들이 함께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아동의 권리경험에 관한 주제분류 결과

상위주제	하위주제	내용
공부의 양면성	미래의 공부	공부, 피할 수 없는 숙명
		국영수와 꿈의 상관 관계
	현재의 공부	강요된 공부, 스트레스 유발인자
		공부는 선행, 흥미는 퇴행
권리보장의 0순위, 놀이	놀이의 유익	삶의 필수재, 놀이
		놀이의 +α
	놀이의 장벽	자투리 시간의 놀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놀 수 있을까?
위험에 몰린 아이들	몸과 마음의 상처	구분짓기와 차별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길에서 맞닥뜨린 위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어른들
		으스스한 골목
행복의 이유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의 느낌표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서 느끼는 사랑
	어린이를 사랑하는 법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항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공부의 양면성

미래의 공부

공부는 아동의 생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아동은 교육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 주며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수정이에게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이고 세림이에게 있어서 공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본 공부는 아동에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권리보장의 중요한 축이자, 미래의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이러한 미래의 공부는 아동의 꿈과 직결된다. 하지만 연구 참여 아동의 대부분은 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성적과 꿈의 성취가 비례한다는 것을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고, 국영수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이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국영수 성적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국영수 성적이 필요 없는 꿈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아이들에게 진짜 꿈이 되지 못한다.



정성수(남)/12세

“공부를 하는게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하는거니까.” 송수정

“의무이기도 하고, 나중에 잘되려면 해야 하니까.” 정성수

“어떤 꿈이든 영어, 수학, 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근데요, 꿈이 그 3개가 꼭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요.
그게 필요 없는 꿈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어져요.” 이선희

현재의 공부

현재 시점에서 아동이 해내야 하는 ‘공부’는 부담이자 스트레스이다.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침해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학업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아이들은 공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한쪽에 묵혀 놓은 ‘장난감’ ‘스케이트보드’를 공부로 인한 권리침해의 사례로 표현하였다. 아이들에게 공부는 자신의 미래가 담보되어 매일 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되었다. 또한 아동들은 학교공부와 학원공부의 이중부담도 가지고 있었다. 예림이는 스스로 원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공부 양과 선행학습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님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다. 학업에 대한 성취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의 극대화가 아닌 아동의 동기 유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타인에 의한 학업 강요는 자기주도성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에는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이예림(여)/13세

“처음에는 미국 같은데 여행가면 영어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어려운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중학교 것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 그랬는데 엄마가
수학이랑 영어는 꾸준히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끝냈어요.” 이예림

권리보장의 0순위, 놀이

놀이의 유익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를 물었을 때, 아동은 서슴없이 ‘놀 수 있는 권리’를 답하였다. 아동이 놀 권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들이 만족할 만큼의 놀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아동에게 놀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당연함 그 자체이다. 하루 일과 중 놀이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다. 놀이는 아동에게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필수재이다. 아동에게 놀이는 단순한 유희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의 의미 그 이상이었다. 또한 아동은 놀이를 타인과 상호작용의 기회로 인식하였으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보았다.



박세림(여)/12세

“집이나 학원에 계속 있다 보면 별로 안 놀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되게 침울한 상태가 될 것 같고, 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노는 게 당연 한 것 같아요.” 권연수

“저는요. 저는 놀고 싶은 시간은 24시간. 토요일은 공부 안 하고 일요일 날에는 40분 동안만 공부하고 끝나요. 그래도 24시간 놀고 싶어요. 자는 시간만 빼고” 조태준

“안놀면 저절로 친구관계도 발전이 없으니까 말도 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랑도 사이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박세림

놀이의 장벽

놀이는 아동에게 삶의 에너지이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동의 하루일과는 공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놀기 위해서는 학원가기 전이나 숙제를 하고 잠들기 전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아동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지 자신이 하고 싶은 프라모델을 조립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주도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아동들은 잠깐씩 주어지는 자투리 시간을 진정한 의미의 놀이시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놀이 관계 속에서 만족스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한편 놀이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도 있었다. 실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마음껏 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야외공간에서 노는 아이들은 놀이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성수(남)/12세

“이제 운동장이 야구부 훈련한다고 다 점령당해서 뛰어 놀 수 없어요.” 강영찬

“학교에서는 또 교장 선생님이 보드타지 말라고 하시고, 천변은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해서 안되고” 정성수

위험에 몰린 아이들

몸과 마음의 상처

학교에서 성적이 높지 못한 아동은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다. 선희의 학교에서는 영어과목 성적별 분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분반 수업은 아이들 스스로도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를 구분 짓게 한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아동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역설적이게도 성적 하나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친구를 성적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었다. 수준별 수업은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진행을 통한 성적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아동은 수준별 수업으로 인해 열등감이 생기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어 공부의 동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겪은 체벌 경험은 아동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성별에 의한 차별도 경험하고 있었다. 남자 형제가 있는 아이들은 동생이나 오빠에 비해 빨래, 청소 등 가사노동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었고 가정에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학교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이나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에 부담함을 느끼고 있었다.



박지우(여)/13세

“저번에 ○○이도 무시를 했어요. 해피반(영어 분반수업 명칭) 수준이 낮다고. (중략) 똑같은 나이이고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시하고, 막 지들은 공부 잘 한다 우리는 못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애들이 차별을 하다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요.” 박지우

“엄마가 오빠말고 저한테만 청소기 밀라하고, 설거지하라 하고, 오빠 남자여서 섬세한걸 못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만 시키고 그래요.” 성소윤

“(국어책을 안가지고 와서) 이따만한 자, 이거로 세워서 때렸나봐요. 애가 뼈를 맞았나봐요. 맞자마자 바로 울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울어’ 이러면서 또 대라는 거예요.” 박지우

길에서 맞닥뜨린 위험

아동은 무질서하고 불법이 행해지는 환경을 안전하지 않고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식하였다. 흡연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영찬이는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학이는 ‘해결할 답이 없다’라는 뜻의 ‘노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동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를 피면서 자신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것을 모순적으로 보았다. 아동보호를 위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동에게 불법 판매를 하는 업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또한 아이들은 늦은 저녁 귀가길, 집 주변의 술집, 술에 취한 어른이 한밤중에 앞집 문을 두드렸던 일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일들이나 무질서한 환경이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동에게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폭력과 폭행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다.



정성수(남)/12세

“담배도 피지 말라고 교육하잖아요. 근데 교육하시는 분이냐 선생님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당당하게 피우세요. 간접흡연도 흡연이잖아요” 이에림

“저희 집 골목이 있는데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는 폐가가 있고 무서운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특히 저녁에 겨울에 공부하고 가면 되게 껌껌해져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지날때마다 으스스해요” 이선희

행복의 이유

내 삶의 에너지

아이들은 권리보장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존재 및 함께하는 일상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연수는 자신의 부모를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수정이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아동에게 있어 가족, 특히 부모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며 당연한 존재였다. 아이들은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엄마가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준 떡볶이, 아빠가 고쳐준 밥술 등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 자신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아동은 친구와 함께 놀거나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권리보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아동에게 있어 친구는 부모와는 다르게 또래간의 유대감이 형성된 ‘통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친구의 의미는 ‘돈’처럼 없으면 못사는 존재였으며 ‘제 2의 심장’처럼 소중한 존재였다. 친구는 권력구조가 평등한 관계여서 서로간의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를 나누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예림(여)/13세

“이게(옆의 사진) 뭐냐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저장해서 했는데요.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에서 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떡을 그냥 없애고 당면만 넣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걸 해주신거예요.” 이예림

“(친구 사진찍은 이유로) 친구들이 기쁘게 해주는 거 같아서. 같이 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많이 통하고 같은 나이고 하니까. (중략) 친구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김지원

어린이를 사랑하는 힘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성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자신들에게도 생각할 힘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너무 어리게만 대하는 것에 대하여 항변하였다. 특히, 핸드폰 사용과 같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부모와 합의점을 찾기를 원하지만, 일방적인 강요와 선택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의 표현의 하나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만, 무시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영찬이는 학교에 놀이터 수리를 건의하였는데 1년 동안 수리가 되지 않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아이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차단되고 무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견반영이 늦어지고, 진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 사용 관련) 저희를 너무 어리게 보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걸 자제할 수 있는데, 제 힘으로. (중략) 제 나름대로 왜 꺼야하는지 이해하고 (중략) 안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엄마가 그거를 압박감을 주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싶고 그러잖아요.” 이선희

“(책을 고를 때) 엄마가 저의 마음이나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사고 싶은 거 사지말고 같이 정해서 샀으면 좋겠어요. 송수정

“저희 학교 놀이터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중략)...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수리는 안되어 있고.” 강영찬

Recommendations |

“아동에게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가장 많이 침해되는 놀 권리” 놀이의 가치 재발견과 놀이권 보장 노력 필요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침해되고 있는 요소로 자신의 ‘놀 권리’를 꼽았다. 아이들은 강요된 학업과 놀이시간의 부족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도한 학습량은 놀이권을 침해하였다. 이렇듯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의 고유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관계형성과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주목받지 못하던 권리였다. 따라서 놀이의 가치 재발견과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놀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확보와 다양한 공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놀이 공간은 아동의 욕구와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다양하고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 놀거리가 없어 스마트폰에서 즐거움을 찾는 상황, 놀이공간을 전투하듯이 찾아 헤매는 수고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안전의 위협요소”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수준에서의 개선 노력 필요

아동이 사는 지역에 따라 안전의 위협요소를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사는 아동의 경우 막연한 범죄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불안해하였으며, 지방에 사는 아동의 경우 정비되지 않은 무질서한 환경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 무질서한 환경은 지역 내 사회적 불안요소를 높이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행 등 일탈 행위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서울시에서는 범죄 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여 무섭고 불안한 좁은 골목길을 ‘소금길’이라는 걷고 싶은 안전한 산책로가 있는 동네로 탈바꿈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아이들이 막연하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에 학교와 가정에서 범죄 예방교육과 대처방법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아져가는 아동의 권리인식 수준”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권리 문제의 이해 필요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공부나 놀이 상황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자체에서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권리침해 문제를 관찰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성인이 무심코 주차한 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에 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흡연금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의 모습에 자신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아동은 성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무시하거나, 표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의 목소리가 청취되고 반영되기 바라는 아이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아동의 참여 기회 보장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주도권을 가진 삶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은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의 표현의 하나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의견존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고 수용해 주는 것이다. 작게는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 내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장이 활발히 마련될 때 성인의 시각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아닌, 아동의 시각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굿네이버스(2016). 대한민국 아동의 현주소, 아동권리지수로 답하다. 2016 아동권리포럼자료집.
- 김젤나·이재연(2007).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와 적응과의 관계. 11(2), 167-185.
- 정병수(2016). 아동참여권 실현을 위한 노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기반으로. 동광, 111, 33-49.
- 홍승애(2010).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인간복지연구, 8(60), 59-80.